

Issue Monitor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삼성KPMG 경제연구원  
September 2014



The contacts at Samjong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이광열**  
경제연구원  
Partner, 삼성KPMG  
Tel: + 82 2 2112 0062  
[kwangryeolyi@kr.kpmg.com](mailto:kwangryeolyi@kr.kpmg.com)

**조진희**  
경제연구원  
Manager, 삼성KPMG  
Tel: + 82 2 2112 7454  
[jinheecho@kr.kpmg.com](mailto:jinheecho@kr.kpmg.com)

**이희진**  
경제연구원  
Analyst, 삼성KPMG  
Tel: + 82 2 2112 7438  
[hlee3@kr.kpmg.com](mailto:hlee3@kr.kpmg.com)

**김주형**  
경제연구원  
Analyst, 삼성KPMG  
Tel: + 82 2 2112 7769  
[joohyongkim@kr.kpmg.com](mailto:joohyongkim@kr.kpmg.com)

<b>Executive Summary</b> .....	<b>2</b>
<b>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mp;A Overview</b> .....	<b>3</b>
<b>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세부 산업별 M&amp;A 현황</b> .....	<b>4</b>
• Internet/Software	
• Telecommunications/Media/Advertising	
• Computers/Semiconductors	
• Electronics/Electrical Component & Equipment	
<b>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mp;A 특징 및 시사점</b> .....	<b>9</b>
• Mega Deal의 증가	
• ICT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 활발	
• 중국 ICT 기업들의 크로스보더 M&A 확대	
• 미국 주요 IT기업의 적극적 M&A 행보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주)과 관계회사(이하"삼성")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시장, 회사,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삼성KPMG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삼성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보고서는 삼성KPMG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배포, 인용, 발간, 복제될 수 없습니다.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T 기업들의 M&A는 그 어느때보다 활발했다. 연초부터 레노버, 페이스북, 구글 등 메이저 기업들의 굵직한 M&A가 줄을 이었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은 ICT 산업 내 세부 산업별 M&A 현황과 주요 ICT 기업들의 M&A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M&A의 특징을 분석했다.

##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Overview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증가로 인해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의 M&A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임
-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는 10.2% 증가한 2,527건, 거래규모는 299% 증가한 4,237억 달러임

##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세부 산업별 M&A 현황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M&A는 IT 기업들의 공격적인 M&A와 글로벌 거대 미디어 그룹들의 사업영역 확장 등의 이슈들로 인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특히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및 타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M&A가 주를 이루었는데, 거래규모 면에서는 미디어/통신 분야가 거래건수 면에서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높음
- **(Internet/Software)** 페이스북과 다음-카카오, 구글, 텐센트, 알리바바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의 대형딜 증가로 거래규모는 전년 상반기 대비 4배 이상 성장했으며, 거래건수는 같은기간 대비 116% 증가한 1,067건을 기록함
- **(Telecommunications/Media/Advertising)** 미국 최대 케이블 TV업체인 컴캐스트의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와 영국 광고기업 WPP와 일본의 Dentsu 등 광고기업들의 적극적인 M&A로 거래건수와 거래규모에서 각각 전년 상반기 대비 106%와 338% 상승함
- **(Computers/Semiconductors)** Computers/Semiconductors 분야는 전년 상반기 대비 106% 증가한 337건을 기록했으며, 애플과 레노버 등이 적극적인 M&A를 추진함
- **(Electronics/Electrical Component & Equipment)** Electronics/Electrical Component & Equipment 분야의 거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364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일본과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기업들의 M&A가 활발함

##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특징 및 시사점

- **(Mega Deal 증가)** 2014 상반기 글로벌 ICT M&A는 금융위기 이후 Mega Deal(거래규모 \$5,000 mil 이상)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 빠져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들로 인한 시장 내 매물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글로벌 ICT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 활발)** 글로벌 ICT 기업들의 금융분야로 진출은 전년 동기 대비 거래규모는 279% 증가한 59억 달러, 거래건수는 47.1% 증가한 103건을 기록함
- **(중국 ICT 기업의 크로스보더 M&A 확대)** 중국 ICT 기업들은 2014년 상반기까지 55억 2,000만 달러 규모와 총 45건의 크로스보더 M&A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해외진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주요 IT기업의 적극적 M&A 행보)** 미국 주요 IT 기업인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56건의 M&A를 기록하는 등 올해 미국 주요 IT 기업의 M&A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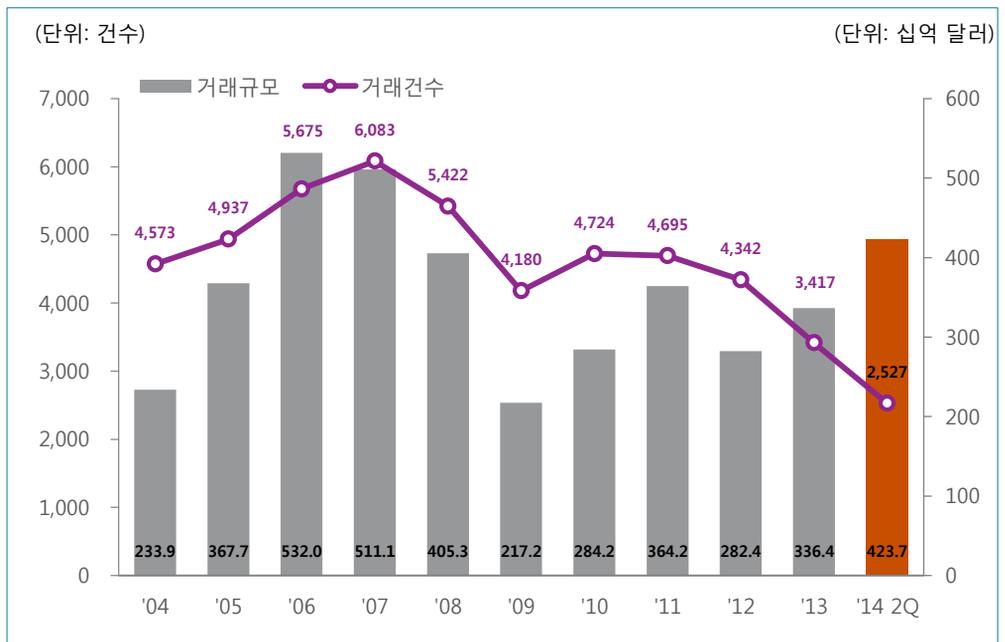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Overview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의 M&A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거래규모는 299% 증가한 4,237억 달러, 거래건수는 10.2% 증가한 2,527건을 기록했다. 상반기와 같은 역동성이 이어진다면 2014년 글로벌 ICT M&A는 거래규모나 거래건수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광고 기업인 WPP와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은 2014년 상반기에만 각각 31건, 21건의 M&A를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AT&T와 보다폰과 같은 거대 통신사들도 사업다각화를 위해 미디어 기업을 인수하며 2014년 상반기 글로벌 M&A를 이끌었다.

과거에는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가 글로벌 ICT 산업의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및 통신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현재 글로벌 ICT M&A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ICT 기업들은 M&A를 통한 해외 진출로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IT 및 통신, 미디어 기업들의 수익 다변화 및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비ICT 또는 타ICT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했다.

<2004~2014 2Q 글로벌 ICT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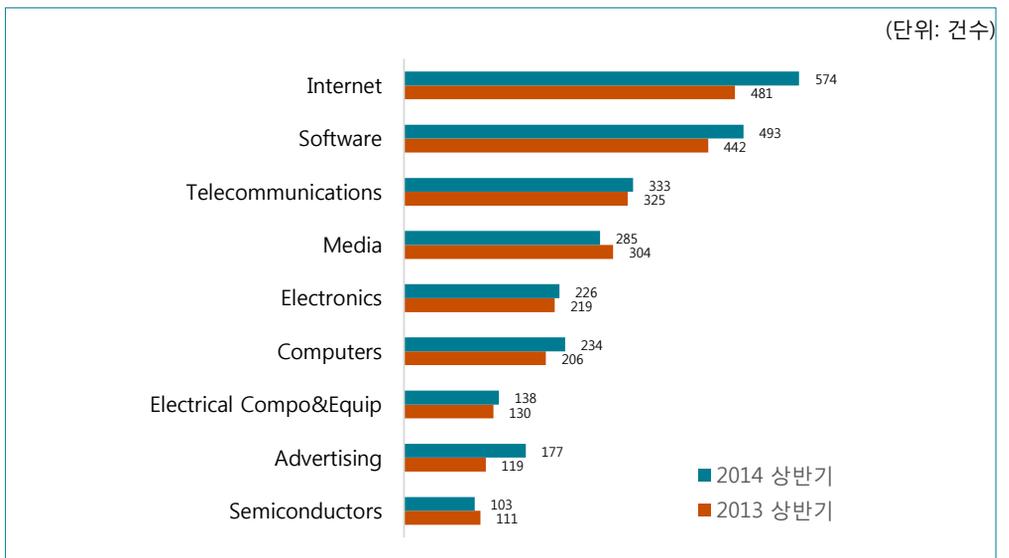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세부 산업별 M&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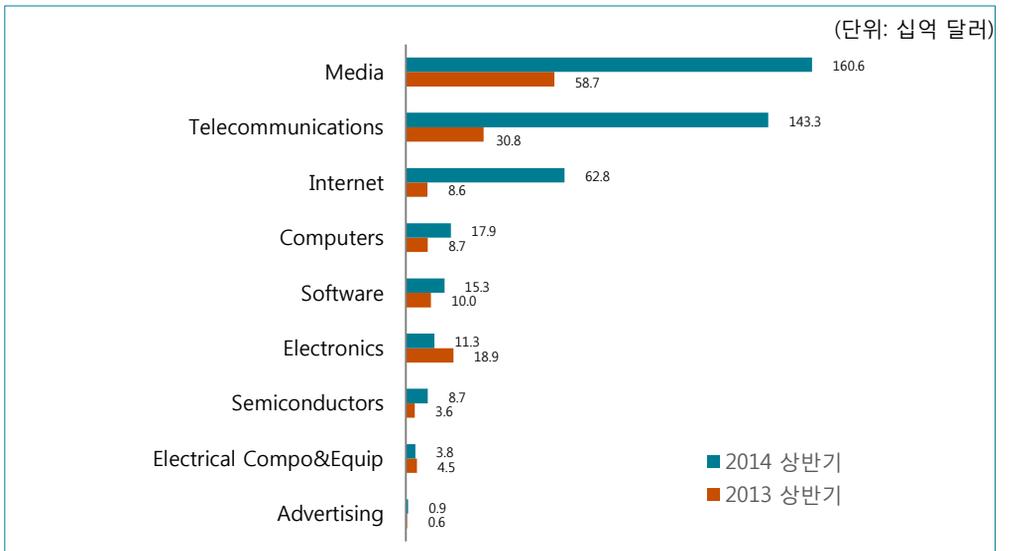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M&A는 IT 기업들의 공격적인 M&A와 글로벌 거대 미디어 그룹들의 사업영역 확장 등의 이슈들로 인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및 타사업영역으로의 확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M&A가 주를 이루었으며, 거래건수 면에서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가 거래규모 면에서는 미디어와 통신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ICT 세부 산업별 M&A 현황은 Internet/Software와 Telecommunications/Media/Advertising, Computers/Semiconductors, Electronics/Electrical Component & Equipment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3-14 상반기 글로벌 ICT 세부 산업별 M&A 거래건수>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2013-14 상반기 글로벌 ICT 세부 산업별 M&A 거래규모>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Internet/Software

글로벌 ICT M&A 시장의 트렌드세터는 Internet/Software 분야의 기업들이었다. Internet/Software 분야는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M&A 시장에서 전년대비 116% 증가한 1,06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ICT M&A의 42%를 차지하는 추적이다. 거래건수 뿐만 아니라 거래규모 면에서도 올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성장한 7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페이스북, 다음-카카오, 구글, 텐센트, 알리바바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의 대형딜 증가에 기인한다. 이들은 상반기에 활발한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세확장에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페이스북은 모바일 메신저 기업인 왓츠앱을 약 190억 달러(약 20조원)에 인수했으며, 이는 페이스북 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크버그는 왓츠앱을 이용하여 글로벌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대 2번째 규모인 20억 달러(약 2조 1,500억원) 규모로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업체인 오쿨러스를 인수했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모바일 이후의 미래 플랫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격적 M&A로 주목받는 구글은 2014년 상반기에만 21건의 M&A를 추진했는데,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며 융합 시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스마트홈업체인 네스트랩을 인수하며 사물인터넷 사업을 본격화 했다. 미국의 IT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IT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도 M&A에 공격적인 모습이다. 중국의 최대 인터넷 업체인 텐센트는 온라인 쇼핑몰인 제이디닷컴 (JD.com)에 투자하는 등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8개 기업에 약 31억 달러를 지출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또한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쿠투도우(Youku Tudou)'에 12억 2,000만 달러(약 1조 2,500억원)를 투자하며 또하나의 강력한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확보했다. 인터넷/소프트웨어 분야는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21건), 야후(12건), 트위터(9건), 페이스북(8건)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 중인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12건)와 텐센트(8건) 등이 활발한 M&A를 추진하며 동 분야의 M&A를 주도하고 있다.

<2014 상반기 Internet/Software Top 10 M&A (건수)>

	Company	전체 M&A	Domestic	Cross border
Internet	Google	21	15	6
Software	Yahoo!	12	12	0
	Alibaba Group	12	11	1
	Twitter	9	6	3
	Tencent	8	6	2
	Facebook	8	4	4
	Epazz	8	7	1
	Dropbox	7	6	1
	Microsoft	6	5	1
	Oracle	5	5	0
	Salesforce	5	4	1
	<b>Total</b>	<b>101</b>	<b>81</b>	<b>20</b>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이처럼 글로벌 Internet/Software 기업들은 기존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 다각화 및 기존 역량 극대화를 위한 하드웨어 분야로의 확장 등을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Telecommunications/Media/Advertising

2014년 상반기 Telecommunications/Media/Advertising 거래건수는 광고 기업들의 활발한 M&A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795건, 거래규모는 통신 기업들의 대규모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38% 증가한 304억 달러를 기록했다.

Advertising 분야에서는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과 동영상 광고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 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M&A를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광고 기업인 영국의 WPP와 일본의 Dentsu, 미국의 Publicis는 올 상반기에만 각각 31건, 9건, 6건의 M&A를 추진하며 공격적인 M&A를 보여주었다. 특히 WPP는 ICT 기업 중 상반기 최다 M&A 건수를 기록했으며, 소규모 PR, 마케팅 등의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14 상반기 Telecommunications/Media/Advertising Top 10 M&A (건수)>

	Company	전체 M&A	Domestic	Cross border
Advertising	WPP	31	4	27
Telecommunications	Cisco Systems	10	6	4
	Dentsu	9	1	8
	Publicis Groupe	6	0	6
	Interpublic Group	6	2	4
	Verizon	6	6	0
	TeliaSonera	5	1	4
	SK Telecom	5	5	0
	Hikari Tsushin	5	5	0
	Omnicom Group	5	0	5
	<b>Total</b>	<b>88</b>	<b>30</b>	<b>58</b>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2014년 상반기 Telecommunications/Media 분야의 최대 M&A는 미국의 케이블 TV업체인 컴캐스트의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다. 컴캐스트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케이블 입지를 확대하고자 약 684억 달러에 타임워너 케이블을 인수합병기로 했으며 계약이 완료되면 3,3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초대형 케이블 TV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다. AT&T 및 보다폰 등 글로벌 메이저 통신사들도 케이블 방송사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나서고 있다. AT&T는 기존의 무선네트워크 서비스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이블 위성 방송사인 Direct TV를 약 66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보다폰 역시 스페인의 케이블 방송사인 Grupo를 인수하며 스페인 케이블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2014 상반기 Telecom/Media/Advertising Top 5 M&A (금액)>

	Acquirer	Target	금액 (백만 달러)
Media	Comcast	Time Warner Cable	68,404
Telecommunications	AT&T	DIRECTV	66,044
	Altice	Societe Francaise	18,765
	Liberty	Ziggo NV	11,078
	Vodafone	Grupo Corporativo ONO	10,026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 Computers/Semiconductors

2014년 상반기 Computers/Semiconductors 분야의 M&A 거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37건을 기록했다. 특히 애플과 레노버는 각각 7건, 5건의 M&A를 추진하며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및 헤드폰 제조업체인 비츠뮤직을 30억 달러에 인수하며, 애플 역사상 가장 큰 M&A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애플의 이러한 행보는 현재 시장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는 음악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비츠의 헤드폰 사업을 통해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레노버는 모토로라의 1만 7,000건에 달하는 특허권을 제외한 스마트폰 사업부를 약 29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를 발판으로 레노버는 2015년 스마트폰 출하량 1억대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시장 점유율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BM의 저가 서버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IT 네트워크 분야로의 사업을 확장 중이다.

<2014 상반기 Computers/Semiconductors Top 10 M&A (건수)>

	Company	전체 M&A	Domestic	Cross border
Computers	Apple	7	5	2
Semiconductors	Synopsys	6	2	4
	Lenovo	5	0	5
	j2 Global	5	1	4
	SunEdison	5	4	1
	3D Systems	4	3	1
	IBM	4	3	1
	Declout	4	2	2
	SK Hynix	3	1	2
	EPAM Systems	3	2	1
	Cadence Design Systems	3	3	0
	Solargiga Energy	3	3	0
	Wi-Lan	3	3	0
	Stratasys	3	3	0
	Mentor Graphics	3	2	1
	<b>Total</b>	<b>61</b>	<b>37</b>	<b>24</b>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Electronics/Electrical Component & Equipment**

2014년 상반기 Electronics/Electrical Component & Equipment 분야의 M&A 거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364건을 기록했다.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기업들이 동 분야의 M&A를 주도했다.

특히 일본 기업 히타치와 도시바는 각각 9건, 5건의 M&A를 진행했다. 히타치는 전체 9건중 8건이 크로스보더 M&A로 그 대상은 인도, 미국, 중국, 폴란드, 영국, 이탈리아 기업 등이며, 그 분야 또한 다양하다. 인수대상 기업은 에너지, 컴퓨터 메모리, 소프트웨어, 자동차 유통 및 제조, 엔지니어링, 헬스케어, 기계 업종이며, 이는 해당국 진출보다는 각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히타치는 수익성이 악화된 전자사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해 왔으며, 에너지, 의료, 건설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도시바도 히타치와 마찬가지로 전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도시바의 M&A는 모두 크로스보더 M&A로 인도, 프랑스, 덴마크, 미국, 영국 등의 워터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공급 기업들이며, 에너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대만의 전자부품업체인 혼하이정밀은 통신시장 진출을 위해 아시아퍼시픽 텔레콤을 인수했다. 이는 최근 실적악화로 인한 사업 다각화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혼하이정밀은 애플의 주요부품공급사로서 애플의 실적과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따라 혼하이정밀은 애플의 의존도를 낮추고, 애플의 단순 OEM업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국가통신 전파위원회로부터 4세대 통신망 사업권을 따내며 통신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SK그룹과의 글로벌 ICT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SK C&C의 지분을 매입하는 등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2014 상반기 Electronics/Electrical Component & Equipment Top 10 M&A (건수)>

	Company	전체 M&A	Domestic	Cross border
Electronics Electrical Compo & Equip	Hitachi	9	1	8
	Hon Hai Precision Industry	5	2	3
	Toshiba	5	0	5
	Trimble Navigation	4	1	3
	Far East Smarter Energy	3	3	0
	AMETEK	3	2	1
	Xianyang Zhongdian IRICO	3	3	0
	Nissha Printing	3	2	1
	Halma PLC	3	1	2
	Flextronics International	3	3	0
<b>Total</b>		<b>41</b>	<b>18</b>	<b>23</b>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특징 및 시사점

글로벌 ICT 산업의 M&A를 살펴본 결과, 2014년 상반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ga Deal의 증가했으며, 둘째, 글로벌 ICT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 ICT 기업들의 크로스보더 M&A 확대되고 있으며, 넷째,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적극적인 M&A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Mega Deal의 증가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M&A에서 Mega Deal(거래규모 \$5,000 mil 이상)은 약 2,2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총 11건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증가와 불황에 빠져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들로 인한 시장 내 매물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기업들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과감히 규모를 확장하고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기업들의 메가딜이 눈에 띈다. 통신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한 케이블TV 시장 진출과 해외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크로스보더 M&A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 컴캐스트는 미국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타임워너 케이블을 인수했으며, 리버티 글로벌 및 보다폰은 네덜란드와 스페인 진출을 위해 M&A를 택했다.

<2008~2014 상반기 글로벌 ICT M&A Mega Deal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거래 건수	8	2	8	5	3	4	11
거래 규모	150.4	13.9	95.1	48.8	16.5	64.9	224.5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규모 \$ 5,000 mil 이상

<2014 상반기 글로벌 ICT M&A Mega Deal>

(단위: 십억 달러)

Acquirer Name	Country	Target Name	Country	Total Value	Date
Comcast	U.S.	Time Warner Cable	U.S.	68.4	'14. 2. 13
AT&T Inc	U.S.	DIRECTV	U.S.	66.0	'14. 5. 18
Altice SA	Luxembourg	Societe Francaise du Radiotelephone	France	18.7	'14. 3. 4
Facebook	U.S.	WhatsApp	U.S.	18.0	'14. 2. 9
Liberty Global	U.K.	Ziggo	Netherlands	11.0	'14. 1. 27
Vodafone Group	U.K.	Grupo Corporativo ONO	Spain	10.0	'14. 3. 17
Charter Communications	U.S.	1.4 million subscribers	U.S.	7.3	'14. 4. 28
Level 3 Communications	U.S.	tw telecom	U.S.	7.1	'14. 6. 16
America Movil SAB de	Mexico	Telekom Austria	Austria	7.0	'14. 5. 15
Altice SA	Luxembourg	Numericable Group	France	5.4	'14. 4. 7
Daum Communications	South Korea	Kakao	South Korea	5.1	'14. 5. 26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규모 \$ 5,000 mil 이상

ICT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 활발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의 모바일 결제 및 스마트 월렛 등 금융산업으로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카카오의 '뱅크월렛', 구글의 '구글월렛'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ICT기업의 비ICT분야, 특히 금융분야로의 M&A 거래규모는 전년 동기 279% 증가한 59억 달러, 거래건수는 45.7% 증가한 102건을 기록했다. IT 기업들은 주로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며 금융업 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 상반기 글로벌 ICT 기업의 비ICT M&A 현황>

Industry	2013 상반기 (건수)	2014 상반기 (건수)	YoY (%)
Industrial	97	101	4.1
<b>Financial</b>	<b>70</b>	<b>102</b>	<b>45.7</b>
Consumer Cycl *	83	80	-3.6
Consumer Ncyl **	44	40	-9.1
Energy	28	14	-50.0
Basic Materials	21	12	-42.9
N.A	14	23	64.3
Diversified ***	10	18	80.0
Utilities	2	1	-50.0
<b>전체 거래 건수</b>	<b>369</b>	<b>391</b>	<b>6.0</b>
<b>전체 거래 규모 (백만달러)</b>	<b>\$ 23,132.1</b>	<b>\$ 17,913.7</b>	<b>-22.6</b>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블룸버그 기준 산업구분

\*: 순환소비재

\*\* : 비순환소비재

\*\*\*: 사업다각화기업

<2013~2014 상반기 글로벌 ICT 기업의 금융산업 M&A 분야>

2013 상반기			2014 상반기	
구분	주요 분야	거래건수	주요분야	거래건수
1	Financial Service	23	Financial Service	35
2	Real Estate	18	Investment Companies	34
3	Investment Companies	17	Real Estate	12
4	Banks	6	Insurance	7
5	Insurance	6	Banks	5
6	기타	0	기타*	9
<b>전체 거래건수</b>		<b>70</b>		<b>102</b>
<b>전체 거래규모 (백만달러)</b>		<b>\$ 4,019.0</b>		<b>\$ 5,912.1</b>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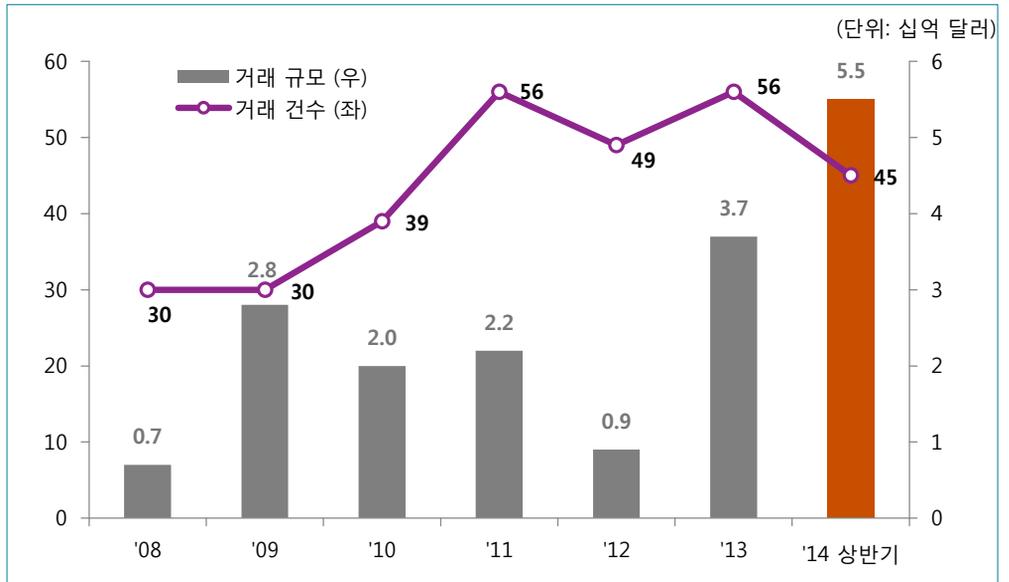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기타: 사업다각화 기업

중국 ICT 기업들의 크로스보더 M&A 확대

중국 ICT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중국 ICT 산업의 크로스보더 M&A 거래규모는 약 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5% 증가했으며, 이미 작년 크로스보더 M&A 규모인 약 38억 달러를 넘어섰다. 거래건수는 45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전체 크로스보더 M&A인 56건에 육박한다. 글로벌 ICT M&A 트렌트와 같이 중국 ICT 기업의 주요 M&A 분야는 인터넷(12건)과 소프트웨어(10건)로 나타났다.

<2008~2014 상반기 중국 ICT 기업의 Cross-Border M&A 추이>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Investment와 M&A 기준

중국의 IT 기업인 레노버, 텐센트 등은 자국뿐 아니라 크로스보더 M&A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레노버가 올해 상반기에 인수합병한 기업은 총 5개의 미국기업으로, IBM 서버 사업부 및 모토로라 스마트폰 사업부 등 핸드폰 제조 및 IT 서비스 관련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은 태국 3위 이동사인 트루의 지분 18%를 인수함으로써 태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 또한 CJ 게임즈에 5,800억원을 투자하며 콘텐츠 분야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IPO를 앞둔 알리바바는 미국의 영상통화 서비스 신생기업인 탱고미를 인수하며, 실리콘밸리 신생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실제 탱고미는 현재까지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신생기업으로 알리바바가 이러한 신생기업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에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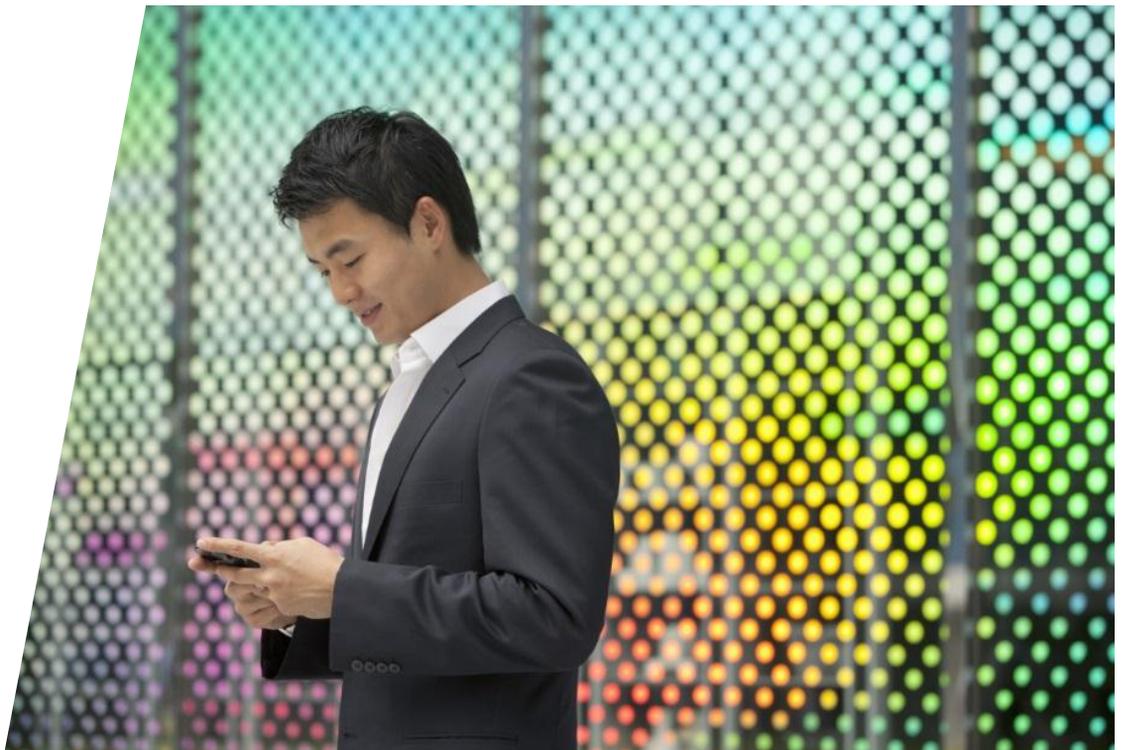
<2014 상반기 중국 ICT Top 10 Cross-Border M&A>

(단위: 백만 달러)

Acquirer Name	Target Name	Country	Industry	Total Value	Date
Lenovo Group	IBM x86 Server & services	U.S.	Computers	2,294.35	'14. 1. 23
Lenovo Group	Motorola Mobility Group	U.S.	Electronics	2,910.00	'14. 1. 29
China Mobile	True Corp	Thailand	Telecommunications	880.65	'14. 6. 9
Tencent Holdings	CJ Games Corp	South Korea	Internet	453.46	'14. 3. 26
Alibaba Group Holding	TangoMe	U.S.	Internet	280.00	'14. 3. 20
Beijing Secbase Technology	Addvalue Communications Pte	Singapore	Electronics	260.17	'14. 3. 25
Sanpower Group	Fortress Group	Cayman Islands	Telecommunications	137.30	'14. 3. 31
Beijing Automotive Industry Holding	Atieva	U.S.	Electrical Compo&Equip	100.00	'14. 2. 27
Jiangsu Phoenix Publishing & Media Corp	Children's business assets	U.S.	Media	80.00	'14. 5. 16
Blue Sky Power Holdings	Cloud Decade	U.K.	Advertising	66.49	'14. 5. 5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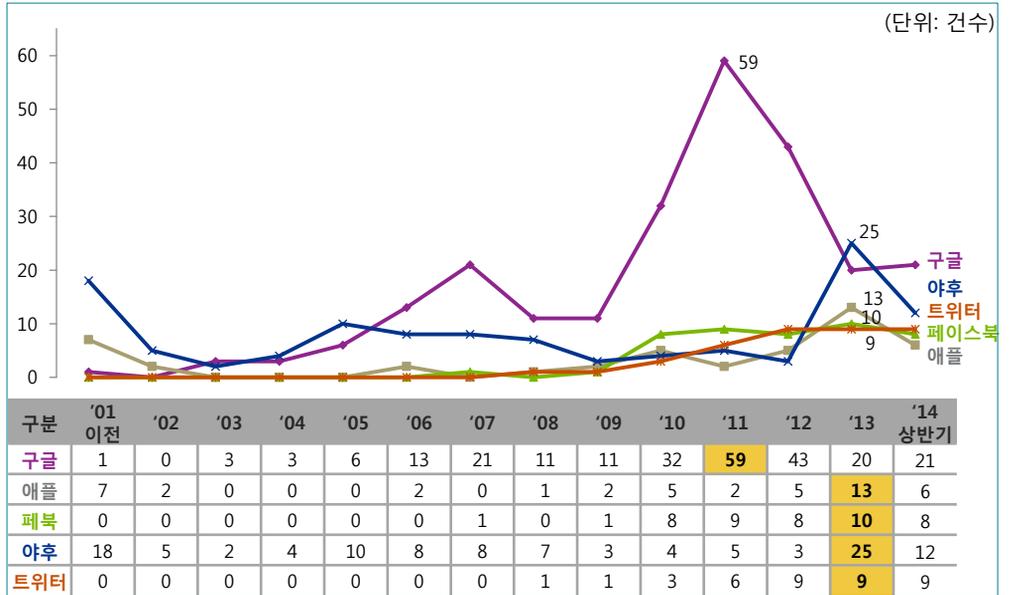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미국 주요 IT 기업의 적극적 M&A 행보

미국 주요 IT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의 올해 상반기 전체 M&A는 총 56건을 기록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찾은 후 그에 알맞은 신생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위 기업들은 2014년 상반기에만 예년의 평균 M&A를 상회하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의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 M&A는 각각 17.1건, 3.0건, 2.8건, 7.8건, 2.2건이었다. 특히 구글의 올해 상반기 M&A는 2013년 M&A 건수를 넘어섰으며, 트위터의 2014년 상반기 M&A 건수 또한 이미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들은 기존 사업분야를 넘어 타산업으로의 확장과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M&A를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주요 IT 기업 M&A 현황>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 최대 M&A 건수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2014년 상반기 M&A 특징은 기존 사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광고/스트리밍 시장에서의 M&A다.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에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구글이 Twitch를 인수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야후의 Fullscreen 인수와 트위터의 Afterlive.tv 인수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광고 스트리밍 시장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M&A를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음성인식과 사물인터넷, 무선인터넷, 웨어러블, 우주항공 등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포함한 구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야후는 가상현실 분야로의 M&A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

# 2014년 상반기 글로벌 ICT 산업 M&A 동향

애플은 콘텐츠 및 웨어러블 준비를 위한 M&A를 진행하는 한편, 일본의 반도체 기업 LCD chip unit과 미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인 LuxVue Technology를 인수하며 비용절감 및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애플은 인텔과 삼성 등에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이번 인수를 통해 공급망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향후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M&A는 기존 사업 확장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신사업 진출을 위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상반기 미국 주요 IT 기업의 분야별 M&A 현황>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분야	분류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chinima Inc</li> <li>Twitch Interactive Inc</li> </ul>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ropcam Inc</li> <li>Nest Labs Inc</li> </ul>	스마트 CCTV/온도조절장치/화제경보기	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irgin Galactic Ltd</li> </ul>	민간 우주항공사	우주여행 프로젝트
Ap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ats Electronics LLC</li> <li>Beats Music LLC</li> </ul>	헤드셋/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CD chip unit/Renesas</li> <li>LuxVue Technology Corp</li> </ul>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Faceboo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culus VR Inc</li> </ul>	3D 가상현실 헤드셋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yte Oy</li> </ul>	모바일 결제 시스템	e-Commerce
Yah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ullscreen Inc</li> <li>News Distribution Network Inc</li> </ul>	동영상 콘텐츠/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loud Party Inc</li> </ul>	3D 가상현실 게임	콘텐츠
Twi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esagraph SAS</li> <li>Namo Media Inc</li> <li>Secondsync Ltd</li> <li>Gnip Inc</li> </ul>	E-마케팅/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광고

Source: 블룸버그, KPMG Analysis  
 Note: 2014년 상반기 발표일 기준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mailto:kwangryeolyi@kr.kpmg.com)

**이희진**

연구원

T: 02-2112-7438

E: [hlee3@kr.kpmg.com](mailto:hlee3@kr.kpmg.com)

**조진희**

책임연구원

T: 02-2112-7454

E: [jinheecho@kr.kpmg.com](mailto:jinheecho@kr.kpmg.com)

**김주형**

연구원

T: 02-2112-7769

E: [joohyongkim@kr.kpmg.com](mailto:joohyongkim@kr.kpmg.com)

[www.kr.kpmg.com](http://www.kr.kpmg.com)

© 2014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